

신생아 돌봄부터 플라워 테라피까지... 출산교실 인기

예비부부 20팀 참여, 공동 육아 준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 신생아 돌봄 교육과 태교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출산 준비



강용곤 보건소장은 "주말임에도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예비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임산부 요가와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나주시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부 출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1일 관내 예비부부 20팀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위대한 탄생, 예비부부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공동 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임신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

된 신생아 돌봄 실습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아기 크기의 모형 인형을 활용해 신생아 목욕 방법과 기저귀 갈기, 속싸개 싸기 등 기본적인 돌봄 방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평소 육아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예비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2부 프로그램에서는 '봄꽃 바구니 만들기' 플라워 테라피가 진행됐다. 참가 부부들은 프리지아와 튤립 등 봄꽃을 활용해 꽃바구니를 만들며 태아와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아내와 함께 꽃을 꽃으



“재능기부로 더 따뜻하게” 병영면 방충망 교체사업 추진 돌담 김영수 대표 재능기부... 20가구 주거환경 개선

김진근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은희·김용관)가 농업회사법인 돌담의 김영수 대표와 협력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튼튼! 방충망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김영수 대표의 재능기부로 현장 실측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지난해 6가구에서 20가구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해충 유입 등 주거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민기질을 피해 3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가구별 교체 수량 제한 없이 노후된 방충망을 전면 교체해 가구당 평균 3개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수 대표는 병영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영수 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은희 공동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 제44회 전남연극제 '최우수상' 쾌거... 전남 대표로 부산 본선행 극단 뭉치들의 '만선', 탄탄한 연기력과 연출력으로 예선 1위 차지

전남 연극인들의 뜨거운 경연장인 '제44회 전남연극제'에서 순천시 대표로 출전한 사)한국연극협회 순천시지부 소속 '극단 뭉치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된 이번 연극제는 '삶이 있는 연극'이라는 주제 아래 강진, 무안, 광양, 여수, 목포, 해남 등 전남 7개 지역 대표 극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치열한 경연 끝에 순천의 '극단 뭉치들'은 작품 '만선'을 통해 독보적인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예선 1위(최우수상)를 기록했다.



이번 수상은 순천시가 단순한 생애 도시를 넘어, 시민의 삶 속에 예술이 살아 숨쉬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중심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 대표로 선발된 순천팀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의 쟁쟁한 대표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순천 연극의 우수성과 전남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전파할 예정이다.
사)한국연극협회 순천시지부 관계자는 "지역 연극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단원들이 땀 흘려 준비한 결과가 '전남 대표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 문화도시 순천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국에 순천 연극의 향기를 퍼뜨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고품격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2026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광양시 12명 선정

광양시는 광양지역 성실 납세자 12명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으며, 광양시에서는 개인 10명과 법인사업체 2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선정된다. 납부액 기준은 법인 2천만 원 이상, 개인 2백만 원 이상이며, 광양시가 추천한 대상을 전라남도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해 최종 선정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재정에 기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고흥군-보성군, 고향사랑 교차기부 '상생... 농촌지도사업 '협력' 강화

고향사랑 교차기부와 지역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정보 교류로 동반 성장 기틀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 농업기술센터와 보성군(군수 김철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이번 상호 교차 기부에는 고흥군과 보성군 농촌지도공무원 총 66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 행사는 단순한 교차 기부를 넘어 양 지자체의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기부식과 함께 진행된 업무협의회에서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농촌진흥분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공유하고, 당면한 농촌 현안과 지도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



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이어지는 상호 교차 기부가 두 지역 농촌지도 공무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지고, 현장에 필요한 농촌지도사업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은 물론 긴밀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제20회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대회 성료

농업 발전 유공자 시상 및 체육-문화행사로 화합의 장 마련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는 지난 3월 21일 담양 추성경기장 담빛야외음악공원에서 제20회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시작, 소통과 협력 그리고 화합'을 주제로 열렸으며, 농업경

바지한 유공 농업인 50명에 대한 시상 이뤄졌다.
서정범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담양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농업경영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파크골프, 슬리퍼 던지기 등 체육행사와 읍면 대표가 참여하는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담양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담양군을 비롯해 담양군의회, 담양경찰서,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및 농협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과 협조 속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담양/이종욱 기자